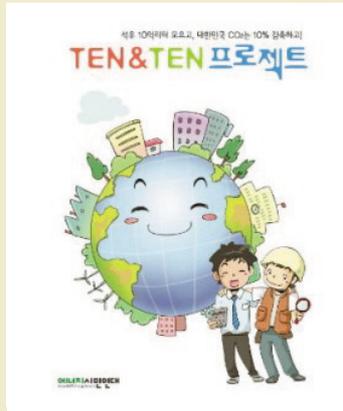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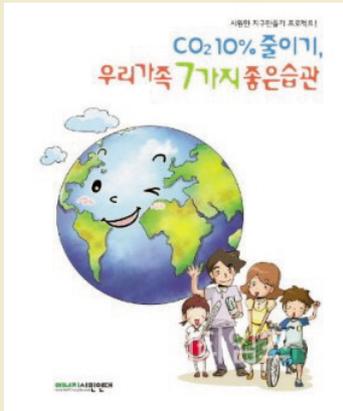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나와 에너지시민연대, 가정·기관용 두개 유형 분류



▲ 시민용(왼쪽)과 기관용(오른쪽) 가이드라인 팸플릿

일반 시민들과 사회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사회 전 분야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CO₂)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가이드라인을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 시민용과, 기업과 건물 등 기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내하는 기관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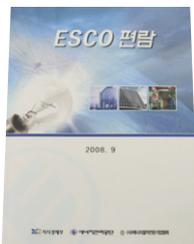
시민용 가이드라인에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출되는 CO₂의 발생원인과 발생량을 확인하고 CO₂를 줄이는 방법이 7가지 습관으로 제시돼 있다. 실천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아이들과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7가지 습관에는 ▲온도계를 걸어두기 ▲에너지 효율 따져보기 ▲플러그 뽑기 ▲물 사용량 확인하기 ▲건강한 교통수단 선택하기 ▲지구를 살리는 현명한 쇼핑 하기 ▲한 단계 작은 용량의 쓰레기봉투 사용하기 등이다.

또한 기관용 가이드라인은 건물과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가정부터 사회 각 기관까지 기후변화 대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에너지시민연대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인 ‘10억리터 석유모으기, 기관 사회협약 운동’에의 참여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 문의 : 02-733-2022>

ESCO협회, 'ESCO편람' 출간 정부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



ESCO협회가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ESCO편람'을 출간했다. 협회는 ESCO

의 시장 확대와 보급 활성화에 발맞춰 정부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사례 케이스스터디, 기술개발, 제품소개, 민간자금유입, ESCO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정보교류에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ESCO편람을 제작했다.

편람은 이번 에너지대전 '우수ESCO 인증서 수여식 및 ESCO우수사례 발표회'장에서 배포돼 큰 호응을 얻었

다. 협회는 매년 편람을 제작해 ESCO 관련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코레일, 'Green Network 녹색경영 비전' 선포

친환경 디자인·운영·투자확대, 고효율·저탄소 교통수단 기대
코레일이 친환경 철도로 에너지효율



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배출을 절감해 교통부문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사장 강경호)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철도의 역할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철도산업 발전을 골자로 한 'Green Network 녹색경영 비전'을 이르면 내달 초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친환경 디자인 적용(Eco-Design) ▲친환경적 운영(Eco-Operation) ▲친환경 투자확대(Eco-Invest) 등 3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각 과제별 중·장기 사업에 오는 2015년까지 총 3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 과제별 중·장기사업에는 ▲LNG 등 대체에너지 철도차량 개발 ▲철도차량 경량화 및 친환경차량 도입 ▲전철화 투자확대 ▲타교통과의 연계환승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5년까지 총 550량으로 늘려 전철화된 노선에 전량 투입해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

또 오는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LNG와 축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 개발에도 적

인천시, 자발적협약 기업 80% 육박

향후 5년간 38만TOE 에너지절감, 120만톤 CO₂저감효과 기대

인천시가 에너지다소비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두산인프라코어(주)를 비롯한 에너지다소비 11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해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체(에너지 사용량 연간 2000TOE이상)는 에너지 사용량의 5% 이상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이행하고, 정부는 참여업체에 250억원 이내에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의 10%를 법인세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산업체가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해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에서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 중 약 80%의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인천시는 향후 5년 동안 38만TOE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120만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산업과 건물 분야에 대한 자발적 협약 사업을 추진해 90개 기업체 등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까지 저감한 온실가스 168만434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는 약 53만TOE로, 이는 4인 가족 기준 34만8684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극 나설 계획이다.

강경호 코레일 사장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과 에너지, 수송 효율을 중시하며 철도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래 국가적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철도투자를 단순한 SOC가 아닌 환경과 에너지·복지 차원으로 확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레일 연구원이 최근 '철도 수송 분담률 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철도의 여객(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포함)과 화물의 수송 분담률은 각각 11.3%와 10.5%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각각 1%만 늘려도 국내총생산(GDP)의 0.7%인 약6000억원의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도 여객의 수송거리 당 에너지 소비량은 63.5kcal/인km로 자가용 승용차 에너지 소비량인 532.1kcal/

에관공, SK마케팅앤컴퍼니와 '탄소캐쉬백' 추진 협약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면 돈이 쌓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달 11일, SK마케팅앤컴퍼니와 '탄소캐쉬백(Carbon Cashbag)' 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시범서비스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캐쉬백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OK캐쉬백 카드 또는 탄소캐쉬백 전용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을 구매하면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 이용, 생활

요금 결제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탄소캐쉬백 제도를 통해 저탄소제품 구매를 확산시켜,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사의 시스템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기반으로 향후 탄소캐쉬백 포인트의 사용처 개발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1W 미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탄소캐쉬백 참여 제후사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인km에 비해 8.4배 낮으며 화물의 경우 철도가 화물차에 비해 무려 14.2배 가량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여객과 화물의 철도 수송 부담률을 각각 선진국 수준인 35%로 높일 경우 에너지 비용과 이산 화탄소 배출비용을 연간 약 14조원 절감할 수 있다.

전북 15개 기업,
에너지 3만toe 절감키로

전북지역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주)창해에탄올과 군장에너지, LG화학 익산공장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은 23일 도청에서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3만toe(석유 환산톤, 약 27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기로 약속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고유가 속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에너지 절약이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체 에너지의 56%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대해 모든 경영자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내 106개 사업장 가운데 약 80% 가량이 에너지 절감 협약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첫 탄소배출권 거래사 탄생
KCF,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기업 공동 설립

국내 첫 탄소배출권 거래 및 투자전문회사인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약칭 KCF, Korean Carbon Finance)'가 이달 중 설립된다.

총 자본금 50억원이 예정된 KCF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탄소펀드의 연계 사업으로 국내 사모탄소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후성, 휴켄스 및 KT&G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전략적 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과 함께 설립할 계획이다.

KCF는 UN의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CER)과 지경부에서 주관하는 온실가스 등록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KCER을 주요 거래 대상 배출권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감축사업의 개발 및 직접 투자, 향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리서치 및 자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등으로 사업 영역

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에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있어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CDM 사업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탄소금융 전문기업이 전무해 주로 해외 중개상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KCF는 향후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해외 거래전문기업 및 거래소의 국내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기업 성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CF 설립에 참여하는 후성(UPC Corporation 공동)과 휴켄스는 UNFCCC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으로 각각 국내 배출권 발생량 2, 3위를 점유(합계 총 CER 발생량의 약 20%)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참여로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수급 및 국내외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에관공-건기研 손잡아 '저탄소 녹색성장 일조' MOU 체결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건물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할로겐대체용 LED 기술기준 재조정 에관공, 조명기술研-업계 의견 조율 나서

가로등과 할로겐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조명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이 다시 한번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들 제품이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인증을 획득한 모델이 없다.

고효율인증 받은 제품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돼 판로확대와 직결되지만 업계는 그동안 기술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져 있어 인증획득이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업계가 가장 어려워 부르는 온도기준과 전기소모량을 판단할 수 있는 역률, 그리고 광효율 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관공은 이에 따라 기술기준을 수립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와 업계 관

계자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 고효율기자재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술기준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업계 의견만 들어서 기술기준을 낮춘다는 것도 자칫하면 고효율기자재로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기술규격을 마련한 연구소와 업계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 최적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기술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인증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해왔던 광효율 기준의 경우 현재 기술기준에 만족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술규격 또한 국제 규격에 맞춰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했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29일 코엑스 313호에서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과 조용주 건기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협력 증진 및 기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건물에너지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물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과제”라며 “앞으로 건기연과 함께 국가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에관공과 건기연이 앞으로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며 “건물부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총 소비량의 2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만큼 오늘의 협력이 보다 큰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